



Market Index / 14일

코스피지수 ▼	2322.32 -6.29	코스닥지수 ▲	766.08 +2.90	유가(WTI, 달러) ▲	96.30 +0.46	환율(원)	1USD 100¥	살때 1336.99	팔때 1291.01	1EUR 1000원	살때 1343.09	팔때 1290.69
								960.17	927.15	1000원	204.13	184.69

금리 인상에 주택 매수세도 위축되나

7월 도내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67.7...전달보다 1.3p ↓
올 1~5월 주택매매거래 4202호로 1년전보다 21.5% 감소
공인중개사 “매매거래 확 줄고 원룸 등 전월세 거래 중심”

한국은행이 13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예적금 금리와 함께 대출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지역 주택매수심리도 일정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주택 실수요층에선 오름대로 오르면 갈 부담에 대출이자까지 오르면서 주택 가격이 일정부분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6월

28~7월10일)한 결과 7월중 도내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67.7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 대비 13.3포인트(p) 떨어진 것으로 전국에서 최대 하락폭을 보이며 전국평균(70.4)을 밑돌았다. 특히 제주는 지난 6월의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주택 실수요층에선 오름대로 오르면 갈 부담에 대출이자까지 오르면서 주택 가격이 일정부분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1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6월

개 시도가 하락했고, 경북은 포함, 나머지 5개 시도는 상승했다.

반면 7월 둘째주 아파트 전세가 가격은 전주 대비 0.01%하락했다. 전세가격은 2020년 11월 첫째주 0.01% 하락에서 둘째주(9일)에 0.03% 상승 전환 후에는 장기간 오름세를 지속하다 약 1년 6개월만인 올해 5월 셋째주(16일)에 0.02% 떨어졌다 한주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었다. 그 후 이번이 첫 하락인데,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전세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주택매매거래는 눈에 띄게 얼어붙고 있다. 올들어 5월까지 주택매매거래량은 4202호로, 지난해 같은기간(5356호)에 견줘 21.5% 감소했다.

도내 한 공인중개사는 “주택을 팔겠다는 매물은 있지만 집주인 입

장에선 더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너무 비싼 데다 앞으로 가격이 내릴 수도 있으니 당분간 시장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며 “현실이 이렇다 보니 금매매가 아니면 주택매매거래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원룸이나 투룸 전월세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동산 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이달 8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인하는 초기부터 빠르게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반면, 금리 인상은 12~1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은 비대칭적인 성격은 금리 인하시 조달비용 감소와 가격상승 기대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금리 인상시엔 조달비용 증가로 수요와 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문미숙기자**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 1년 유예

농식품부, 연말까지 상환일 도래 대출금 연장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 창업 자금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커지는 농가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상환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원금 상환유예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등에 따른 신용도 하락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시행중인 금리 인하에 이은 추가 조치다. 농식품부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융합자금(운전자금) 등 단기정책자금 대출금리(고정)를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해 현재 고정금리 1.5%를 적용 중이다.

대출금 상환유예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원금 상환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중이거나 이달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상환일이 도래

정인 농업융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 육성자금(일반후계농 육성자금, 우수후계농 추가 지원), 귀농창업자금(귀농창업과 주택구입자금)이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총 2076억원으로 추정된다.

원금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이나 농업은행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다만 거처기간중인 대출금은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연체 중인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유예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 유예가 최근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도, 총허용어획량 어선별 할당량 확정

오징어 등 3개 어종·418척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TAC)에 대한 어선별 할당량을 확정했다.

TAC(Total Allowable Catch)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종별 연간 개인 어획량을 정하는 제도이다.

제주자치도는 2022년 7월~2023년 6월 어기 총허용어획량(TAC)에 대한 시·도별 TAC 배분량을 지난 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도 배분량 총 3만 3813t 중 유묘량(3722t)을 제외한 3만 112t을 오징어 등 3개 어종·5개 어종의 418척 어선에 할당했다.

어종별로 오징어는 근해채낚기 어선 41척에 1092t, 근해자망 어선 99척에 1151t을 각 할당했다.

이번 어기부터 TAC 관리대상에 포함된 갈치 어종의 경우 근해연승 어선 170척에 1만 4123t을 할당

했다. 갈치와 마찬가지로 TAC 대상에 포함된 참조기 어종에 대해서는 근해자망 어선 134척에 1만 3653t, 외곽대형저인망 어선 3척에 93t을 각각 배분했다. 어선별 TAC 할당은 어업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할당 기준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어종별 TAC 물량 및 조업상황 등을 고려해 오징어 근해채낚기는 어획실적 70%와 t수 가중치 30%, 오징어 근해자망은 어획실적 80%와 t수 가중치 20%, 갈치 근해연승척당 균등배분, 참조기 근해자망은 어획실적 80%와 t수 가중치 20%, 참조기 외곽대형저인망 어획실적 70%와 t수 가중치 30% 기준을 각각 적용해 할당했다.

개인별 할당증명서는 행정시 별로 해당 어업인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7월 16일 조복...보양식 재료 준비 조복을 이틀 앞둔 14일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연휴를 고르고 있다.

농업·농촌 지도자 양성 교육도 농기원, 교육생 25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 선도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생 25명을 2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제주농업의 가치 제고, 인재 양성, 지식경영 등 리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4차산업혁명과 최신 농업 트렌드 분석을 통한 미래농업 환경 대비 ▷제주 수놓음의 삶을 따라 본 공동체의 중요성과 리더의 역할 ▷사례로 배우는 알기 쉬운 농업 세법과 개인 유형별 맞춤 소문법 ▷치유농업의 이해와 몸과 마음 힐링 치유 프로그램 등이다. **고대리기자**

제주택배노조 “우정당국 일방적 계약 위반”

조천읍 택배 수탁 장소 변경 등 문제 제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우정당국이 일방적으로 택배 물건을 받는 수탁 장소를 변경하고 배송구역을 조정했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갑자기 우체물류지원단 광주지사는 화북동 우편집배센터가 20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제주시 조천읍 일대 택배물량을 하루 아침에 노형동 우편집배국으로 옮길 것을 공문으로 통보했다”며 “또한 배송구역을 일방적으로 개편해 조천읍 중산간 일대까지 배송할 것으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대로 하게 되면 조천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지난 1일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 상에는 수탁장소 변경은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하며 배송구역 조정도 반드시 사전에 합의하도록 돼 있다. 이는 일방적인 계약 위반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량 좋은 신종품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완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에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함량 및 높이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절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키라향, 산화향(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늘, 팔삭, 세미봉, 금굴,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행사묘목 판매(연간 10~100~200~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사전예약 탐밭1호, 선경, 주문생산 전문생산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종품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991번길1(수산리735)